



1969년 신문방송학과 1기 졸업생들이 본관 앞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옷에 붙인 명찰과 교표 뱃지에서 지금과 달랐던 대학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진=경희기록관)

신방과 65학번 50년만의 캠퍼스 나들이

모습은 변했지만 열정은 그대로

김지원 기자 kjk990327@khu.ac.kr

“애 너는 가까이 사는 애가 제일 늦게 오니?” 여느 강의실 풍경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사가 오갔다. 동기의 지각을 타박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오랜만에 방문한 캠퍼스에서 만난 동문에 대한 설렘과 반가움으로 들떠 있었다. 아직 봄기운이 남아있는 캠퍼스는 청 운관 앞 벤치에 모인 흰머리 희끗 희끗한 이들에게도 설렘을 안기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달 29일 신문방송학과(신방과·현 언론정보학과) 1기 졸업생 21명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서울캠퍼스를 찾았다.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가 던진 ‘학교가 많이 변했어, 직접 보면 감회가 새로울 거야’라는 말에 신방과 1기 동창회장 강봉식(신문방송학 65) 동문은 과거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우리대학의 캠퍼스를 자랑스러워했다. 김성희 동문은 “학교가 얼마나 예뻤는지 한국외대 학생들이 좌우 우리학교에 와서 데이트 했다”며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학교를 걸으면 꼭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석조건물을 형상화 한 SPACE21의 길게 뻗은 기둥은 예나 지금이나 ‘캠퍼스가 아름다운 경희대학교’라는 점체성 형성

신방과 1기 동문에게 지금의 캠퍼스는 낯설어 뒷걸음치는 익숙한 공간으로 다가온 듯 보였다. 졸업생들은 크고 작은 변화로 달라진 캠퍼스를 바라보며 눈짓과 손짓으로, 때로는 서로의 기억 조각을 맞춰보면서 그 시절을 회상했다. 그들에게도 익숙할 교시팀부터 SPACE21, 정경대학, 동의미당을 거쳐 평화의 전당과 본관 등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는 동안 곳곳에서 감탄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예전부터 우리학교가 건물을 멋지게 짓기로 유명했지.” SPACE21 건물 앞에 선 김성희(신문방송학 65) 동문은 과거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우리대학의 캠퍼스를 자랑스러워했다. 김성희 동문은 “학교가 얼마나 예뻤는지 한국외대 학생들이 좌우 우리학교에 와서 데이트 했다”며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학교를 걸으면 꼭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석조건물을 형상화 한 SPACE21의 길게 뻗은 기둥은 예나 지금이나 ‘캠퍼스가 아름다운 경희대학교’라는 점체성 형성

에 기여한다. 대운동장 입구로 자리를 지키다 지금은 새 건물의 입구가 된 개선문이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마냥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남자 동문들은 개선문의 기둥을 어루만지며 일천한 캠퍼스의 모습에 놀라는 듯 했다. SPACE21 4층 야외 테라스에 오르면 미술대학부터 학생회관까지 학교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남자 졸업생들은 쉽게 난간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서로의 기억을 맞춰가며 파노라마 위에 그 시절의 것을 겹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노천극장을 보며 “여기 원래 무대가 있었는데 말이야 맞지?”라고 되물으며 서로의 기억을 더듬었다. 노천극장에는 ‘소라관’이라는 무대가 설치돼 있었다. 1959년 10월에 완공, 2015년 6월에 철거됐으니 꼬박 56년 동안 학교의 한가운데를 지킨 셈이다. 노천극장은 1만 5천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노천극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입학식과 졸업식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르며 제 기능을 발휘하곤 했었다. 졸업생들은

주차장이 되어 버린 노천극장에서 50년 전의 무대를 떠올리는 듯 보였다.

60살 즈음, 어린 후배들도 숨을 헐떡이는 헐떡고개에서도 이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매일같이 오가던 학교를 둘러보는 일인걸요”라며 웃었다. 불편한 신발과 높은 계단도 캠퍼스가 주는 설렘과 그리움은 이기지 못하는 듯 했다. “헐떡고개를 다 오르면 구두코에 먼지가 뿐에게 앉은 했지”라고 말하는 김성희 동문은 흙길이었던 헐떡고개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 지금은 차도에 잘 조경된 돌레길이 조성돼 있지만 본래 헐떡고개는 오솔길에 가까웠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야 하는 고개라는 점, 여전히 헐떡고개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고개를 오르기 전 심호흡을 하고 단숨에 오른 뒤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애증의 고개인 셈이다.

▶12면으로 이어짐

경희인 모두가 함께하는 개교 70주년 기념 주간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우리대학은 오는 18일 개교 70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를 개교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개교 7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위원회)’는 ‘개교 70주년, 경희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 지속 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행사를 준비했다.

13일에는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프랑스 오리지널 팀의 내한공연으로, 오후 7

시 30분 서울캠퍼스(서울캠)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구성원, 학부모,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즐기는 장이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와 사은, 나눔 등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선정된 구성원들에 게 공연 초대권 2매씩을 전달했다.

16일에는 해외 동문과의 환담회가 열린다. 학교는 해외 동문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모교의 발전상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70주년 개교 기념식은 17일 오후 3시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교직원과 학생대표, 명예 기관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갈 수

대표, 동문 등이 참석해 학교의 70주년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위원회 오종민 사무총장은 “우리대학은 개교 이래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창학 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가치 아래 학술기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공적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우리학교 70년 역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사무총장은 “개교 100주년까지 학문적 토대를 강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캠 중앙도서관은 15일 오후 12시 30분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제50회 작은 음악회 “Listen to the sound of spring”을 개최한다.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 브리튼 등 유명 작곡가의 곡을 현악 선율과 함께 들을 수 있다. 중앙박물관은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교 70주년 기념 “한국의 기와” 특별전을 개최한다. 기와 문화를 되짚어보고, 전통 문화의 이해와 계승에 일조하는 것 이 특별전의 취지다.

법인, 변경된 투표반영비 사실상 거부 총동문회, “단체별 이익에 연연 말아야”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구성원 간 갈등이 빚어진 현 상황이 너무나 아쉽다.”

“무엇이 민주적 절차인지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대학평의원회(대평의)’총장선출 규정안(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시선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미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갈등으로 인해 ‘개교 70주년 기념식 이전까지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새 총장을 선출하자’는 구성원 공동의 목표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부총장단은 지난 3일 구성원 면밀을 통해 “법인 이사회가 지난 2018학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원만하고 신속한 구성원 합의 과정을 거쳐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논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은 구성원 합의가 없는 총장후보추천 과정은 원활하

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포함한 합의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다”라고도 전했다. 법인 이사회가 지난달 22일 마련된 ‘대평의 규정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교수의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대평의가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진 대평의 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법인 이사회는 의도적으로 범대위의 손을 들어주는 척 하며 구성원들의 내분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6개월째 총장 부재의 행정 공백이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법인은 현 사태를 중재하려는 주인의식이나 의지를 보여 주기는커녕 자신의 책무마저 구성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교수의회는 현 구성원 논란에 대해 법인과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한 셈이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명

〈국제뉴스팀장〉 이서림(한국어학 2017)
〈서울뉴스팀장〉 김수혁(철학 2016)

개교 70주년 특집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경희 70년의 민주주의는
교훈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가 ▶6~7면

기획

대학사회 만연한 족보 매매, 정보의 불균형 없애야 ▶5면